

# 전남도 안전·확장·발전 가능성 중점 현장실사 준비

방사광가속기 입지 최종 후보지 2곳에 나주 포함 오늘 혁신도시 현장 브리핑 전남과학고 학생 100여명은 문 대통령에 '유치 염원' 편지

진동·소음·홍수·산사태 등 자연재해 이력이 전무하다.

지진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기상청 자료가 구축된 지난 50년간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단 3차례로, 충북·경북 등 경쟁지보다 월등히 적다는 점도 강점이다. 방사광가속기 부지 외에도 인근 클러스터 부지 등 520만㎡(약 160만평)의 부지가 있어 가속기 관련 추가 연구시설 및 사업체 부지 확보가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정부지가 혁신도시에 인접해 있으며, 5.5km 인근에 150만 인구의 광주시가 공동생활권에 있다는 점도 장차 시설을 사용할 연구진 등에게 매력적이다. 전남도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이 반영됐다는 점도 거듭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소영호 정책기획관이 후보지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총괄 브리핑을, 박봉순 나주시 부시장이 현장 안내를 맡는다. 정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공모에는 당초 전남 나주와 함께 충북 청주, 강원 춘천, 경북 포항 등 4개 지역이 유치 계획서를 제출했다.

한편, 후보지인 나주에 있는 전남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사광가속기 나주 유치를 희망하는 내용의 편지를 띄우는 등 지역 각계의 방사광가속기 유치 염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남 과학고 학생 100여명은 지난달 30



광주시의회와 광주 지역 5개 자치구 의회 의원들이 6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에 맞춰 5·18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와 광주에서 열릴 예정인 보수단체의 집회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일 문 대통령 앞으로 방사광가속기 나주 유치 염원을 담은 100여명의 자필 편지를 부쳤다. 전남과학고 학생회장 최원준(3학년) 군은 편지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중국 행 비행기에서 한 연구원과 만남을 계기로 나라를 위해 힘쓰는 연구자의 꿈을 갖게 됐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하고 "방사광가속기가 과학고 후배들이 꿈을 갖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호남권에 유치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 시·구의원 "5·18평화 극우보수단체 집회 철회하라"

### 5·18특별법 조속 통과도 촉구

광주시가 보수단체의 광주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한데 이어 광주시의회와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의회 의원들도 보수단체의 집회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와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의회 의원 90여명은 6일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합동 결의대회를 열고 극우 보수단체의 금남로 집회 추진을 규탄했다.

이들은 또 5·18을 애국·날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5·18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이들은 "5·18은 이념과 정파를 떠나 정부가 인정한 민주화운동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 유산에 등재된 자랑스러운 역사임에도 일부 극우 세력들은 5·18을 지속

해서 비방·편협하면서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마저 왜곡하는 몰지각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연대를 비롯한 극우 단체가 5·18 민주화운동 추모기간에 행정당시 희생자들의 핏빛으로 물들여졌던 금남로에서 5·18을 편협하고 왜곡하는 집회를 추진하고자 하는 반인륜적인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입법·사법·행정부의 공히 규정한 5·18을 편협·왜곡해 민주헌정체제의 판단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라고 자인하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5·18을 편협하고 왜곡하는 극우 단체는 즉시 집회를 포기하고 5·18 영령과 광주 시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참회해야 한다"며 "국회는 5·18을 비방·왜곡·날

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과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연대 등 이른바 보수단체는 5·18 4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16~17일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광주 동구 일대, 광주시청 앞, 5·18 기념문화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어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촉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유연대 등의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어기면 참가자 개인별로 300만 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5·18 40주년 특별전 서울서 열린다

역사박물관서 13일부터 10월까지 시민들 일기·정부 군 기록 등 전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는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특별전시가 서울에서 열린다.

5·18기념재단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전남도 5·18연구소, 국가기록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특별전시를 오는 13일부터 10월31일까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전시가 80년 5월 광주에서 이를 경험하고, 목격하고, 알린 사람들의 기록과 당시 시민들을 탄압했던 정부와 군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면 5·18 민주화운동이 한국 현대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

는지 조명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광주시민들이 남긴 기록을 서울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 당시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전도사, 주부 등 광주시민들이 뜨거운 심장으로 상황을 써내려갔던 일기 16점과 언론 탄압으로 기사화하지 못했던 기자들이 남긴 취재수첩, 메모 5점을 선보인다. 또 당시 정부기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전개부터 이후 명예회복까지 정부 시각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전시는 4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3층 기획전시실에서는 1980년 5월17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광주에서 일어난 일들

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층 기획전시실에서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5·18 관련 정부기록물, 국방부와 광주 동구청에서 생산한 상황일지 등을 날짜별로 전시한다. 박물관 외부 역사회랑에서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당시 사진을 비롯한 미디어 콘텐츠를 선보인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진오 관장은 "서울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대규모 전시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5·18이 광주의 역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것을 국민이 공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골목과 동무 대신 게임과 오락이 차지했구나



김은영의 '그림 생각'

(311)어린이

"옛날 아이들은/장난감이 귀해서/거울이 가면/풀밭에서 놀았는데/풀들이 들고/꽃들이 들어서/깊고 기운 웃인데도/봄 냄새가 났구나..."

<이문구 작 '옛날 아이들' 중에서>  
산동네 골목을 누비며 신나게 살았던 어린 시절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깨닫고 놀이 전문가가 된 작가 편해문은 '아이들은 놀기 위해 세상에 온다'라는 책에서 "진정한 놀이는 물, 불, 바람, 흙 등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었던 것들과의 원시적인 만남 자체"라고 말하고 "잘 놀아본 아이러야 행복을 찾아 나설 힘이 있다"고 강조한다. 마당과 골목과 동무를 잃어버

려 또래 세계와 놀이하는 온통 위험과 컴퓨터와 텔레비전이 차지했고 놀이 대신 게임과 오락이 들어섰다는 것이다.

어린이를 보내면서 아이들과 함께 원 없이 시간을 보내는 대신 오래된 장난감가게에서 선물을 골랐던 지난 시간들을 반성해본다. 어쩌면 오늘날은 그저 마음껏 놀고 또 노는 것도 어느덧 프로 그래나 학습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구나 하는 회한과 함께 말이다.

프랑스의 화가이자 삽화가인 티몰레옹 마리 로브리송(1831~1914)의 '장난감 가게'는 아이들이 진열장에 놓인 장난감을 조금이라도 더 잘 보기 위해 손 치발을 하거나 무릎을 구부리고, 두 손으로 유리창을 밀듯이 최대한 밀착해서 코를 납작하게 대고 바라보는 등의 다양한 모습을 담았다. 동서고금을 통해 아이들은 장난감을 본능적으로 좋아하고 또 이렇듯 귀여운 모습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장난감을 고르는 시간이 행복했을 지도 모르겠다.

역사, 초상, 장르화가였던 작가는 아



로브리송 작 '장난감가게'

이들이 등장하는 일상 풍경을 많이 그렸는데 그의 아이들 그림은 당시에도 매우 인기가 높아 판화로 제작돼 출판될 정도였다고 한다. 특히 작가는 아이들이 작은 장난감들을 통해 겪는 슬픔이나 즐거움 등의 감정이 드러나는 장면을 상냥한 시선으로 섬세하게 그려내 보는 순간 동심에 빠져들게 하는 것 같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 깨끗한 숨 따뜻한 심 행복한 삶

깨끗한 숨을 쉴 수 있는 청정 에너지  
따뜻한 심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에너지  
사람과 자연을 먼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갑니다.

- 개별난방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46.1% 감소
- 개별난방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3.7% 감소
- 황산화물질 배출 저감 청정기체 연료 전환
- 대기오염 방지시설 확충

